

목포권

무안 향토 특산물 대박 '눈에 띄네'

(주)범우, 백련·양파·단호박 활용 리면·칼국수 개발 작년 6억 매출 이어 올 30억 목표...수출도 5억 기대



(주)범우 이요복 대표가 무안산 백련과 양파 등을 이용해 개발한 리면과 칼국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무안지역 특산물인 백련과 양파, 단호박을 이용한 웰빙 먹을거리로 성공을 거둔 기업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무안군 청계 농공단지에서 기능성 면류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주)범우(대표 이요복), 주력상품은 무안산 양파를 비롯해 백련, 단호박 등을 재료로 만든 리면과 국수다. 브랜드명은 '백련 미(美) 리면' '양파 미(美) 리면'이다. 양파리면은 기름에 튀기는 대신 양파의 열풍으로 수분을 말리는 방식을 채택, 일반 리면에 비해 유통기간이 두배 이상 길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공무원 최고기와 벨리안 과일이 일어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바뀌면서 일반 리면보다 70% 이상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

HACCP인증을 획득했다. 이어 2004년 국수 생산라인을 개설하고, 2005년 '양파 성분'을 함유하는 면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 취득, 클린사업장 인증서를 취득하는 등 신생기업으로 식품생산기업이 갖춰야 할 거의 모든 안전성을 공인 받아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판매를 앞둔 지난 2005년 사상 최악의 폭설피해로 인해 공장이 무너지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무안군이 신활력사업 대상 군으로 선정되면서 생산설비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고 재건을 거듭한 끝에 리면 제조라인과 냉면 제조 시설, 건조실, 포장설비, 위생설비 등 우수한 시설을 갖추게 됐다. 이요복 대표는 "각 나라마다 제품에 대한 요구사항이 달라 스티커를 부착해 포장지로 사용하다 보니 많은 비용이 소요돼 원가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면서 "해외수출을 포괄하고자 하는 등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것"을 희망했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하당 광장 이름 지어 주세요"

목포 14일까지 공모

목포시가 가장 '하당 광장'에 어울리는 멋진 이름을 오는 14일까지 공모한다. 목포시는 상동 하당 보석사우나 앞 연못 광장 일대에 보행자 도로, 십자형 도시 숲 조성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부르기 쉬우면서 관광시설의 상징적 의미가 담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광장 명칭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갯바위 앞바다에 '햇불 형상' 등대 설치

목포해양청 4억 들여 9월 준공

목포의 관광명소 가운데 하나인 갯바위 앞 바다에 '햇불 형상'의 등대가 설치된다. 6일 목포지방 해양환경청에 따르면 목포시 용해동 국립 해양유물전시관 남서쪽 800m 해상에 마당여에 4억3천여만원이 들여 9월 준공을 목표로 등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작한다. 이 등대는 대불 부두 진입로 인근

을 향하는 선박의 안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햇불 형상을 하고 있는 23.6m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갯바위와 대불 부두에서 볼 수 있다. 목포항만청 김삼열 청장은 "등부두 설치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유도했던 마당여에 등대가 새로 설치되면 대불 부두를 오가는 선박의 안전 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춘기자 sslee@

신안 천일염 '소비자 유통망 구축' 급하다

전남발전연구원 천일염 생산자·공무원 설문

지난해 12월 정부에 의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신규 지정된 신안 천일염 산업특구가 활성화되면서 천일염 생산자·공무원 설문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전남발전연구원의 '리전인포' 최신후에 따르면 신안군 관내 천일염 생산자와 관계공무원 등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가 특구사업에 있어서 가장

먼저 추진할 사업으로 생산자·공무원 설문을 꼽았다. 다음은 천일염 판매장 개설(17.9%), 도농 교류확대(10.1%), 천일염 전문인력 양성(6%), 천일염 박물관·체험관 건립(5%) 등의 순이었다. 특구사업에 가장 필요한 시설이나 사업으로는 소비자 유통망 구축(29%), 판매 촉진·홍보(24.4%), 직

판장 설치(14.7%) 등을 요구했으며 특구사업의 추진주체로는 응답자의 83%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구실을 해주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천일염산업특구의 소득창출을 위해서는 천일염 가공시설(42.5%)과 직판장(38.8%) 시설에 지원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전시·체험관·관광시설과 연계관광상품이나 시설, 도농교류센터 등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신안 임자도서 '말 마라톤' 대회

17~19일 '틀림축제' 기간 마장마술 시범 등 이벤트도

신안군 임자면 대광해수욕장에서 '해변 말 마라톤 대회'가 열린다. 신안군은 500만 송이의 튼실꽃이 장관을 이룬 '제2회 튼실축제' 기간인 오는 17~19일 대광해수욕장에서 '2009 춘계 국민생활체육 전국 해변지구력 승마대회'를 연다고 6일 밝혔다.



길이 12km, 폭 400m에 달하는 광활한 백사장이 펼쳐진 대광해수욕장은 해변 승마장으로 국내 유일의 말 마라톤 코스로 부상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말 20여 마리, 선수·동호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해 무료 승마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마상 스포츠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17일 전국 최초로 임자초등학교 승마부 창단식을 한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공무원이 '바다쓰레기 수거 장비' 개발

김성수 신안 비금면장

신안군 현직 공무원이 바다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다. 신안군 김성수(53·사진) 비금면장은 최근 농업용 트랙터에 간단히 장착해 바다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바다쓰레기 수거장비(일명 비치 클리너)'를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이번 개발된 장비는 1대당 300만 원 가량의 저렴한 제작비용과 소수 인력만으로 일시에 많은 바다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신안군은 해마다 공해상에서 밀려

오는 1천200여의 해양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성수 비금면장은 "바다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Advertisement for '7.9급 공무원 전직력' (7.9 grade civil servant career) with contact info for www.mdgosl.co.kr

Advertisement for '경전분 메가경찰학원' (Gyeongjeonbeon Mega Police Academy) with contact info for www.gmega.co.kr

Large advertisement for 'KIN (주)국민법률경매' (KIN National Law Auction) with contact info for 0621364-8700 and 010-4608-3700